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¹⁷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¹⁸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¹⁹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²⁰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²¹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눅6:17-21)

질병들은 영적 생명에 속한 악한 것들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치유 사역은 교회와 인

류를 들끓게 해서 영적 사망으로 이끌었던 다양한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하여 주심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기적들은 교회와 천국의 상태들을 포함하고 또 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느 기적들과는 구별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주님의 기적들이 주로 병 고치심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AC.8364:6)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364번 글 6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s diseases represented the hurtful and evil things of the spiritual life, therefore by the diseases which the Lord healed is signified liberation from various kinds of evil and falsity which infested the church and the human race, and which would have led to spiritual death. For Divine miracles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miracles by the fact that they involve and have regard to states of the church and of the heavenly kingdom. Therefore the Lord's miracles consisted chie

눅6:17-21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fly in the healing of diseases.

이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에 관한 주석 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All the disease that I have put on the Egyptians, I will not put upon thee.*)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의 열두 사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열두 사도는 주님의 열두 제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뜻으로는 자기 자신과 세상을 믿지 않고, 오직 주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이 열두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열둘(12)이란 수는 믿음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숫자 ‘열둘’(12)의 의미를 통해 우리는 사람마다 믿음의 모습이 다르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른 이유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동기와 방법 및 그 열정이 다 다릅니다. 말씀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믿음들을 주님의 열두 사도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 열두 사도, 곧 열두 제자와, 또 함께한 다른 제자들과도 함께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¹⁷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 평지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평지란 말은 창세기 19장 17절에도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여 멸망함을 면하라 (창19:17)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돔 성을 멸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시켜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이끌어 내시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천사는 롯의 가족에게 들, 곧 평지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들, 곧 평지는 교리를 뜻하고, 산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평지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라는 것은 교리 지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서 평지는 보통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지로 내려오신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지식 속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의 지식 속으로 주님이 선을 동반한 진리로서 흘러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본질적으로 선을 동반한 진리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평지에 서셨다고 했습니다. ‘서다’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평지에 서신 것은 선을 동반한 진리의 능력이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 교리에 순

종하도록 만든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교리의 지식만 가지고 있을 때는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의 지식 가운데는 반드시 선을 동반한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듭나게 하는 모든 능력은 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교리의 지식 가운데 머물러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교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제자들을 통해 진리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에서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는 천적인 교회를 뜻하고요, 예루살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은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로는 내적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시돈은 외적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로 사람들은 말씀의 내적 의미

눅6:17-21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지만, 시돈 사람들은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들이 모두 **‘해안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장 외적인 사람들입니다. 외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는 들이지만, 삶에 적용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말씀의 심오한 내용을 즐기면서도 정작 교회나 이웃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두로와 시돈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된 진리를 찾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본문을 보면,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라고 합니다. 골방에 앉아서 말씀의 의미만 즐기면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말씀도 듣기를 원하고, 병 고침 받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것은 순종을 방해하는 악과 거짓을 극복하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참된 진리이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각처에서 몰려왔습니다. 18절입니다.

18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으리라

신앙인들이 시험 중에 있을 때는 언제나 더러운 영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은 욕망을 자극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작은 잘못을 하면 그것을 크게 부풀려서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더러운 영들로부터 놓임을 받았습니다. 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던 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입니다. 19절입니다.

19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지려고 한 까닭은 병 고치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만지는 것’은 주님과 소통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통해 신성한 능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진리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동반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 러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에서 나오는, 선을 동반한 진리의 능력이 병을 낫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과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8 장에도 있습니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입니다. 여인은 그동안 병을 고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병이 낫지를 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생을 한 후에야 여인은 비로소 병을 고칠 사람은 주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주님의 옷깃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병이 치유될 수 있겠다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바로 병이 나았습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모두 크고 작은 병들을 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병이 낫지를 앓습니다. 그러므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병을 고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앞 절에서는 모여든 사람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20절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자아를 믿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주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아를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간절히 만지기를 원했을 때, 그때 그들은 주님의 제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병이 고쳐집니다. 그

눅6:17-21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래서 주님은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에서 ‘**눈**’은 진리에 대한 이해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눈을 들다**’는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는 주님 자신이 눈을 드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눈을 드시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진리도 선도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선에 대해 많이 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는 것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며, 주님은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으로부터 진리와 선이 그들에게 흘러들

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21지금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계시록 해설 118번 글 8항에 보면 ‘**주린 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린 자는 진리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진리를 통해 완성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린 자는 진리의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진리 즉 선을 동반한 진리를 통해 거듭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린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 ‘**배부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일하시는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는 신

‘가난하고 주린 자가 복이 있다’

성은 직접적인 신성도 있고, 간접적인 신성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는 진리는 말하자면 간접적인 신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섭리를 펴실 때, 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을 병행하실까요? 그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신성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와 선은 사람을 거둬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신성을 조절하십니다. 그 조절된 신성이 바로 천국의 천사들과 제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간접적인 진리요, 선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간접적인 진리와 선 가운데도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와 제자들을 통해 유입되는 간접적인 신성 가운데는 언제나 직접적인 신성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끝으로 주님은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진리와 선에 주린 자들

을 주님을 만지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갈망하고 의에 굶주려 할 때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와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는 진리도 없고 의도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병이 치유되고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하신 은혜가 서울 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⁴⁷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⁴⁸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눅24:47-48) 아멘

원본

2018-03-04(D1)

서울 새 교회 이순철 목사

설교

2023-01-18(D4)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

이순철 목사